

#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체계) 개편(연구안)

## - 연구 및 논(회)의 자료 -

### ★ 들어가기 전에 ★

□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논어의 위정편에 공자가 애제자인 ‘유’에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줄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다.**” 17대 노조 첫 회보의 인사칼럼에서 인용했던 경구이며, 어쩌면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며 ‘겸손’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고대서양의 철학(Philosophy)도 만물의 근원과 원리를 추궁하였지만, 근대 학문(과학)적 체계로 들어설 때도 철학(연구)을 하는 목적은 “무지를 깨달아가는 것(행위), 無知를 인식(知)”하는 것으로 정리(인식론)됩니다. 공허, 무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식적 행위(사고), 즉 이러한 인식에서 모든 문명은 출발하여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어떻게 아는가?** 최근에 일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견과 언행들은 어쩌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부족, 나아가 인식 공허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노조 일반에 대한 오해된 상식과 관념을 재정립하여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노조의 체계로 정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자료 및 각종 참고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의 일정 수준의 이해와 인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축된 노조의 체계를 함께 이해하고 전국적·일반적 노동조합들의 운영원리와 체계들을 참고하여 새 틀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조합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

## ▷ 우리 노동조합에서의 흔한 질문 몇 가지 ◁

### ☎ 노동조합이 무엇입니까?

☞ [한국노총 기본교안 1] 개별적으로는 약자인 노동자들이 연합한 단일체.

- 자본권력, 정치권력의 강제력, 경제 외적 폭력에 대항하는 연합체.
- 헌법 등 법률적인 기본적 보호장치가 확보되고 있는 과정적 상태.
- 인사권 無: 급부 제공, 권력(한) 위임권 등 不/경영권 無: 이익(윤) 창출 및 점유(분배) 不

### ☎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는 견제기구' 아닙니까?

☞ [한국노총 기본교안 2] 노동조합은 권력체가 아니라 권력에 맞선 조직체이므로 일반적으로 내부적 견제기구를 두지 않음. 압도적인 외적 권력(폭력)의 집중 견제(탄압)를 받음.

- 외부의 거대하고 집요한 권력체-폭력체에 대항하는 조직이므로 오로지 내부적 견제 주체는 조합원(총회)임.
- 일반적으로 상시 감사기구(회계감사기구)를 통한 조사 및 소추적 행위의 절차를 통하고, 최종적으로는 총회의 탄핵절차(규약: 사업 및 정책 포함)가 완비되어 있음.

### ☎ 노동조합 활동에서 '야당(견제)'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 노동조합은 국가권력(정치)체가 아니며 특히 권력 작용 즉 통치(지배) 조직이 아님.

- 국가 체제와 구별: 입법 → 총회, 사법 → 총회 및 감사, 행정 → 집행부, 대의원 등(?), 야당(제도?) → 조합원 선거 등.
- 노조의 입법(규약 제개정 및 감사 등)은 총회(직접민주주의)에서 결정. 집행부(위원장)도 정 부여당이나 대통령 역할 不. 조합원 의결(총회) 사항을 수임받아 수행하는 대표자일 뿐.
- 무능하고 어용적인 노동조합, 부정한 노동조합이라면 탄핵(총회 절차)하거나 새 집행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조합원 결정(선거)을 받아 노조업무 수행하면 됨.

### ☎ 노동조합 대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한국노총 기본교안 2] 조합원과 집행부를 연결하는 '혈관' '척추'.

- 조합원의 의견(사) 반영, 심의(의결)하는 대의(신/행) 위임(매개)인.
- 본 노조와 선출방식 및 역할이 다른 여타 일반적 노조에서는 회의, 대회를 두어 총회에 갈음하도록 의사결정권을 지님.

## I. 추진 배경

### 1. 17대-2차년도 정기총회 의결 사항: 2차년도 사업계획 핵심사업 2호(집행부 수입)

#### 2. 일반적·선진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 대면 접촉 및 집합적 사업 조건이 불가능한 시대적 환경 고려한 일상적 소통체계 마련
- 노동조합 의사결정 체계(기구)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발족
- 의사결정기구 정비,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정,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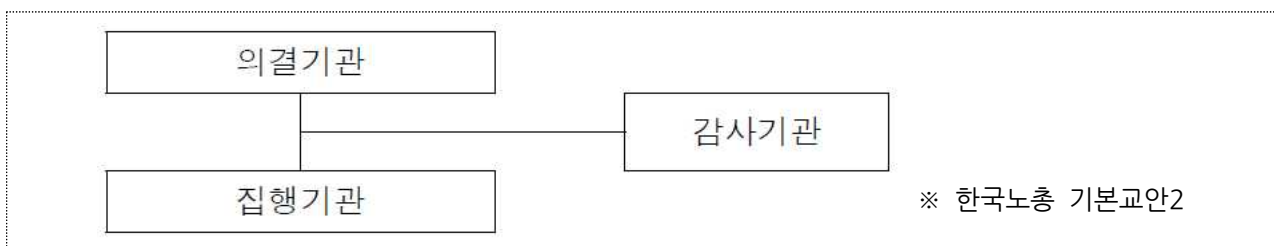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거, 상급단체(한국노총)의 표준규약(안) 및 각종 노동조합 규약상 의결구조 반영, 적용으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사 반영 및 결정의 적합(법)화
3. 대의원의 선거구(권역)별 선출을 통한 현장 조합원의 의사 반영, 즉 대의성 확보(명확화)
4. 대의원 회의의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권 부여를 통한 노조 운영체계의 일반화 추진

## II. 노동조합의 조직 성격(정체성) 및 목적[한국노총 기본교안 참고]

- 노동조합, 'UNION'의 의미대로 연합, 결합, 합체, 합동, 단결, 합병, 합일, 화합, 일치 등 단일체, 전일체이며, 개별자로서는 약자들의 연합체, 혹은 정치 및 자본권력에 맞서는 약자들의 연합군대로 표현하기도 함.

## III. 노동조합의 체계와 역할[한국노총 기본교안 자료 발췌]

### 가. 기본 체계



#### □ 의결기관

- 총회, 대의원대회가 해당되며, 노조법상 1년 1회 이상 개최 규정
- 규모가 큰 노조나 연합체에서는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와 같은 일상적 의결기구를 별도 운영

#### □ 집행기관

- 통상 집행부라 지칭(집행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부서장, 부서원 등으로 구성
-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상무집행위원회라고도 함

#### □ 감사기관

- 의결사항을 처리하는지 감독, 일반적으로 회계감사위원회라고 함. 감사위원은 총회 혹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실시

□ 기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 사람 몸과 같은 노동조합 조직체계

- 노동조합은 유기적인 생명체 즉 사람과 같은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노 조	사람	하는 일	고장나면?
위 원 장	두뇌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얼굴 /종합적 판단과 결정, 활동의 최종책임	두통 / 뇌사
집 행 부	심장	부서활동을 담당 / 조합원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성 · 방향성 제시	저혈압 / 심장마비
대 의 원	척추	집행부와 조합원을 연결	허리디스크 / 반신불수
조 합 원	몸	노동조합 그 자체	타박상 / 암

- 신체 어느 한 기관이라도 제 기능을 못하거나 각 기관이 따로 따로 움직일 경우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노동조합도 위원장부터 조합원까지 각각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서로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진다.

- 위원장은 위원장답게,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대의원은 대의원답게, 조합원은 조합원답게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가 상호협조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노동조합이 제대로 설 수 있다.

※ 한국노총 기본교안2

나. 집행기관(부서)의 역할

- 임원의 지도에 따라 일상활동을 책임지고 운영, 규약에 근거한 부서별 사업 추진 등

다. 대의원의 역할: 노동조합의 현장성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최전방의 현장간부

▷ 집행부와 조합원을 연결하는 중간고리

- 노조의 방침과 계획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조합원의 입장을 모아서 다시 집행부에 전달해야 한다. 이때 대의원 개인 의견이 섞여 더해지거나 일부 조합원의 의견이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액면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 실제로 많은 노동조합에서 간부들끼리 회의는 치열하게 하지만 정작 현장 조합원들은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의원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결정 사항을 요약정리해서 결정사항과 그러한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문제의식을 함께 조합원에게 전달해 조합원들이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국노총 기본교안2



#### ▷ 최전방의 현장 간부

- 대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조합원을 자주 만나는 것이다. 조합원의 고충을 듣고 노동조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는 조합원 혹은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대의원 자격으로 만나야 한다.
- 현장부서원들의 단결을 위해 다양한 일상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경조사 챙기기, 생일선물 증정, 식사모임 등을 통해 만남과 토론을 활성화 시켜 나간다.
- 현장에서 사용자측의 부당한 지시나 처우가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상투쟁은 너무 지나치면 지치고, 간과하면 노조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으로 되 돌아온다. 현장부서에서의 사용자측의 탄압은 1차적으로 대의원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불가능할 시 즉시 노조에 보고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 현장부서의 비조합원을 파악하고 노조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항상 조합가입원서를 가지고 다니다가 꼭 대의원이 직접 받는다.

※ 한국노총 기본교안2

#### Ⅳ. 의사결정구조 개편(안) 제안 배경: “한국노총 표준안” 참조

1. 본 노조는 총회에 의결사항이 집중되어 있음: 노조법상 ①대표자의 선출과 해임, ②조직형태의 변경,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③쟁의행위의 결의를 제외하면 대의원대회에 갈음할 수 있음
2. 본 노조의 대의원은 선거구(권역: 부서별, 직종별 등)가 없고, 따라서 대의 권역이 없어 의사 반영 및 심의를 대의할 조합원을 특정할 수 없음
3. 대의원 선출 규약(1인 10표 행사)으로 인해 투표의 비중성에 대한 지적이 있으며, 대의원회를 따로 둘 수는 있으나, 전체 권역 선출직인 위원장, 부위원장이 제외된 점이 지적됨.
4. 선거구(권역, 현장-부서, 직종, 직급 등)별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한 의결기능의 대의원 회의 체계로 개편이 요청됨(대부분 노동조합 경우)
5. 당연직 대의원(본 노조의 사무국장)의 노조법 위배 여부가 규약개정 논의 사항으로 지적됨.
6. 여성, 하위직급자 등의 노조 관심도(간부 참여 등)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개선해야 함.

#### Ⅴ. 개편(규약 개정) 일정 계획

- 연구위원회 ⇨ 결론(잠정) ⇨ 조합원 공지(설명) ⇨ 설문조사 ⇨ 연구위원회 ⇨ 집행부(개편안 수립) ⇨ 조합원 공지 ⇨ 대의원회(심의) ⇨ 총회(의결) ⇨ 개정(실행: 18대)

#### Ⅵ.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의사결정 구조 연구자료(안): 별첨 자료